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 소속 사회복지전공생의 멘토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배 은 경*

< 국문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에 소속된 사회복지전공생의 멘토링 경험을 탐색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H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자원봉사동아리에 소속되어 아동 대상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회의 초점집단면접 및 활동일지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연구 접근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4개의 주제, 9개의 하위주제로 구성된다. 4개의 주제는 ‘멘토링을 모르는 멘토’, ‘부여된 멘토 역할의 경험’, ‘오랜된 문제, 멘토링에서의 제한점 인식과 변화 모색을 위한 시도’, ‘새로운 시도에 따른 멘토의 성장과 과제’ 등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 소속 사회복지전공생의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멘토링,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 사회복지전공생, 질적 연구

* 배은경 (E-mail: fare79@daum.net)
학위취득대학: 이화여자대학교
현직: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 논문은 2014년도 호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논문접수일 : 2016년 10월 01일, 논문수정일 : 2016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6년 11월 25일

A Qualitative Study on the Mentoring Experiences of Students Volunteers in University: Focused on Social Work Students

Bae, Eun-kyung

< Abstract >

This study explores the mentoring experiences of social work students who were affiliated with a university volunteer club, specifically of undergraduate students affiliated with the volunteer club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ork of H University.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five focus group interviews and analyzing the journals of students' voluntary activities based on the qualitative case study. Four themes and nine sub-themes were drawn from the results. The four themes are as follows: "the mentor who doesn't know what mentoring is ; "mentoring experiences as given ; "the long-term problem of acknowledging limitations in mentoring and attempting change ; and "growth to mentor status through new efforts and following through on the task.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ions are offered on how to support the mentoring activities of volunteer clubs in undergraduate colleges.

[Keywords] *mentoring, volunteer club in university, social work students, qualitative study*

I. 서론

개인의 관계가 시민사회로 확장한 측면에 초점을 두어 사회적 자본을 다룬 퍼트남(Putnam 2000)은 “Bowling Alone”이라는 저서에서 혼자서 볼링을 치는 개인을 통하여 사회적 유대와 결속이 해체되고 개인의 고립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사회 전반에 대하여 논한 바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식의 발달 정도는 경제발전과도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Putnam 1993),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과 OECD 등은 2000년대 이후 사회적 자본 개념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홍영란 외 2006, 691). 이러한 국제적 흐름들은 한국 국민들의 시민성 함양에 대한 국가적 관심으로 이어져 반영되어왔다(심연수 2013).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대한민국정부 2005, 691)에서는 사회적 신뢰·협력 네트워크 구축 영역 정책 과제로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다룬 바 있으며, 이후 대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장려되고 있다.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인 의미에서 생애발달과정에서의 성숙과 통찰적 자기개발에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의미에서는 대학생의 학습과 발달을 증진시킴과 함께 타인수용,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의식 함양이라는 측면(조휘일 외 2009)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분야는 다양하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mentoring) 활동에서 대학생은 세대 차이가 적고(박현선 2000), 역할모델이 가능하며(고윤순 2014), 학습 멘토링의 경우 튜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고홍월·이자명 2010)에서 자원봉사자로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는 멘티(mentee)

중심의 효과성 연구 및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박현선 2012; 이상용 2012). 멘토 선발 및 훈련, 지원 등과 같은 멘토의 특성도 멘토링의 효과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Karcher 2007) 멘토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각도에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멘토링 활동 제공주체인 멘토 입장에서 질적으로 접근한 연구라 하더라도 정부기관 또는 대학 본부(고윤순 2014; 김영순·방현희·홍정훈 2014; 김정원·김병찬 2012), 교수자(한인영·박형원·김주현 2005)가 직접 멘토링을 주관하거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와 같이 멘토가 자발적인 주체로 멘토링을 진행하며 하게 되는 경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에 소속된 사회복지전공생의 멘토링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자원봉사가 장려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스펙(SPEC, specification의 약어)’ 차원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김정원·김병찬 2012). 이에 본 연구자는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과 같이 금전적 보상이 명확한 멘토링 활동과 순수 자원봉사에서의 멘토 경험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학점이나 장학금과 같은 특별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자원봉사로써 이루어지는 멘토링 활동의 경험은 무엇인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전공분야에 따른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진로 탐색, 공동체 의식 고양, 학습의 실천적 적용으로 인한 전문성 향상이라는 의의(이정해·김현주 2014)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비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전공생이 멘토링 자원봉

사 활동을 통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성장을 경험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멘토링 활동 뿐 아니라 사회복지교육의 질적 강화 측면에서도 제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전공생의 멘토링 활동 경험을 살펴봄에 있어 학생 개인 뿐 아니라 소속된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의 변화에 따른 경험도 함께 탐색하고자 한다. 자원봉사동아리에 소속된 대학생의 멘토링 활동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 뿐 아니라 관련 기관 및 담당자, 동아리 조직의 변화에도 그 성과와 지속여부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성문주·유지영 2013)에서 개인 뿐 아니라 동아리 차원의 변화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에 소속된 사회복지전공생의 멘토링 경험을 탐색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대학교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에 소속된 사회복지전공생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 및 활동일지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질적 연구 접근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대학생 자원봉사와 멘토링

자원봉사의 정의는 국가나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UNV(2001)와 ILO(2011) 등 자원봉사에 대한 국제적인 정의를 고려하여 지은정(2014)은 자원봉사의 특성을 금전

적 이득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 자유의지에 따른 비강제적 활동,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정리하고 있다.

1996년 대학의 사회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조직되었고(김정원·김병찬 2012),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 과목이 개설되는 등(원미순·박혜숙 2008) 1990년대 이후 대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2015년 자원봉사센터현황(행정자치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5)에 따르면, 전국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대학생은 123,961명으로 평균 6.8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링은 전통적으로 나이와 경험이 더 많은 멘토가 멘티를 도우며(Ragins and Kram 2007), 멘티와 멘토 간의 친밀한 상호관계를 통하여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04년 미국의 Big brother Big Sister가 조직화되면서 멘토링이 시작된 이후(<http://www.bbbsi.org>) 멘토링의 성과가 근거기반으로 증명되면서(Dewit et al. 2016; Dubois et al. 2002; Wood and Mayo-Wilson 2012) 멘토링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멘토링은 크게 지역사회 기반 멘토링(Community-Based Mentoring)과 학교 기반 멘토링(School-Based Mentoring)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기반 멘토링은 관계 지향적이거나 발달에 초점을 두어 멘토와 멘티가 보다 친밀하고 장기간의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멘티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목표로 한다. 학교 기반 멘토링은 상대적으로 단기간 동안 특정 목표에 초점을 둔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McQuillin and Lyons 2016). 처음에는 민간 영역, 지역사회 기반 멘토링 중심에서 시작된 활동은 점차 정부와 학교 기반 멘토링

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Grossman et al. 2012).

사회복지 현장에서 멘토를 연결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멘토링은 비중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최선희 외 2010), 대학생은 국내 선행연구에서 멘토링 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양지훈·김민화 2016). 대학생이 멘토로 참여하였을 때 멘티의 행동적응 변화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이금진 2015), 멘토링 활동은 멘티 뿐 아니라 멘토에게 있어서도 자아인식이 증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박현선 2000). 그 외에 멘토 경험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끼치며(노윤정·이기학 2012), 멘티에 대한 이해의 증가나 직업 분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Jackson 2002) 대학생 멘토링은 계속적으로 장려되는 추세이다.

2. 국내 대학생 멘토링 선행연구

멘토링의 효과성이 주목받음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멘토링 관련 선행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대학생 멘토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김순규·장영숙·정미라 2012; 박현선 2000, 2012), 멘토링 운영실태 및 참여·인식 영향 요인(김재철·성경주 2008; 이상용 2012), 멘티 및 멘토 경험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양민화 외 2011; 박경민 2008; 한영주 외 2015)가 이루어져 왔다.

멘토링의 운영에 따라 멘토링의 효과 및 경험의 차이가 크다는 점(박경민 2008; 이금진 2015)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멘토링 활동의 기획 주체, 멘토의 전공, 멘토링의 목적과 형태, 멘토링 진행기간 등은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대학생 멘토링 선행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멘토링 활동의 기획주체는 정부 유관기관 또는 대학교 사회봉사센터인 경우가 주로 많이 나타났다. 멘토링의 효과성에 주목하여 아동청소년 지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공식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에,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와 같이 자원봉사자인 멘토가 멘토링의 실행주체로 참여하는 선행연구는 제한적으로 실행되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대1 멘토링이 진행된 성문주·유지영(2013)의 연구 외에는 찾기가 어렵다. 멘토링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등과 같이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 및 학습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멘토링의 형태는 1대1 멘토링 또는 1대1과 집단 멘토링 형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멘토링의 기간은 다양하나 대부분 4-10개월로 상대적으로 단기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의 전공은 다양하나, 전공을 심도있게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한 멘토가 많았던 만큼(김남숙·김승현 2011) 참여대학생의 전공을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교육학 및 사회복지학과 같은 관련 전공자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경우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 전공과 진로에 대한 확신이 보다 명확해지고(배진형·안정선·방진희 2014),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현장과 관련 실천기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윤순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에 소속된 사회복지전공생의 멘토링 경험이 어떠한지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표 1> 국내 대학생 멘토링 선행연구의 특성

연구자	멘토링 활동 기획주체	멘토 전공	멘토링의 목적	멘토링 형태	진행 기간
박현선(2000)	연구자	명시 X	실직가정 자녀 정서 및 학습지원	1대1 및 집단	8주
이길영·황명식 (2004)	연구자	영어교육학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지원	1대1	1학기
박경민(2008)	대학교·교육부 대학생멘토링사업	사범대학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 및 문화지원	1대1	10개월
윤경원·엄재은 (2009)	시민단체	多 전공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학습 및 정서 지원	1대1	6~14개월
신윤희·안양희 (2009)	연구자	간호학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	1대1 및 집단	4개월
김동일 외 (2010)	연구자	사범대학	청소년의 학업 및 정서 지원	집단	4일
김남숙·김승현 (2011)	장애인복지기관	사범대학 /아동가족학	장애가정 아동의 학습지원	1대1	명시 X
김한나·김홍석 (2012)	대학교 사회봉사센터	多 전공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지원	1대1	6개월 이상
박현선(2012)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명시 X	저소득가정 청소년 정서 및 학습지원	1대1	1년
이상용(2012)	교육부 대학생멘토링사업	多 전공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학습지원	1대1	명시 X
성문주·유지영 (2013)	대학생자원봉사동아리	사회복지학	고등학생의 정서지원, 문화체험	1대1 및 집단	9개월
고윤순(2014)	대학교 자원봉사단	多 전공	보호관찰청소년의 정서 및 학습지원	집단	8개월 이상
김영순·방현희·홍정훈(2014)	교육부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멘토링 사업	多 전공	다문화·탈북가정 자녀의 학습지원	1대1	9개월 이상
박창우·이용재 (2014)	대학교 사회봉사센터	多 전공	저소득가정 아동의 정서지원, 문화체험	1대1	6개월 이상
배진형·안정선·방진희(2014)	대학교·보건복지부 휴먼네트워크사업	多 전공	저소득가정 아동의 학습, 정서지원	1대1 및 집단	6개월 이상
한영주 외 (2015)	명시 X	명시 X	빈곤가정 청소년의 정서지원	1대1	12개월 이상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H대학교 대학생 자원 봉사동아리 W에서 멘토링 활동에 참가한 사회복지전공생으로, 초점집단면접에는 1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속해있는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 W는 2004년 처음 만들어졌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자원봉사를 주목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이다. 학과 동아리로 만들어져 동아리를 담당하는 지도교수는 존재하나,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멘토링 활동 계획 및 실행은 지도교수의 관여 없이 학생들 주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에 가입 후 6개월 이상 활동한 학생들로, 성별과 학년, 역할이

<표 2>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코드	성별	연령 (만)	학년	동아리내 역할	멘토링 참여시기
1	여	20	2학년	임원	2014년
2	여	21	3학년	회원	2014년
3	남	25	1학년	회원	2014년, 2015년
4	남	26	4학년	임원	2014년
5	남	25	3학년	임원	2014년, 2015년
6	여	20	2학년	임원	2014년, 2015년
7	여	20	2학년	회원	2014년, 2015년
8	여	19	2학년	회원	2014년
9	여	22	4학년	회원	2014년, 2015년
10	남	24	4학년	회원	2015년
11	여	21	3학년	회원	2014년, 2015년
12	남	19	1학년	회원	2015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생 자원 봉사동아리 학생들이 인식한 멘토링에서의 경험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다.

2.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점집단면접과 활동일지 등을 주된 자료수집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참여자들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주제 분야에 대한 인식을 자극, 자신들의 경험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Kitzinger 1994).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 소속 사회복지전공생의 멘토링 경험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2년에 걸쳐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초점집단면접은 2014년 11월~12월 2집단 각 2회, 2015년 12월 1집단 1회로 총 5회가 이루어졌으며, 1회당 90~120분이 소요되었다. 면접 내용은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에서의 멘토링을 통한 경험은 무엇인가?”, “참여한 멘토링 활동에 있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장애물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등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초점집단면접에서 녹음한 파일들은 녹취록으로 모두 작성을 하였다. 이후 녹취록과 녹음 내용을 반복해 듣고 읽으면서 전체적인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에서의 멘토링 경험을 파악하였다.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의 멘토링 경험을 담은 의미단위들을 찾아내어 유사한 것들을 묶고 하위범주를 설정한 다음, 범주들을 명명하였다. 범주화는 하위범주 점검과 재조정의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자에 의하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3. 연구의 질 검증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대학생임을 고려하여 연구설계에서부터 윤리적 이슈를 엄격하게 검토하고자 하였다. 2014년 5월 H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승인(No. 1041223-201405-HR-006-01)을 받은 뒤 실시되었다. 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고려사항은 자발적 참여와 고지된 동의, 연구결과에 대한 공유, 비밀보장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사전에 본 연구의 취지와 필요성, 자료의 저장과 보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속한 동아리의 임원진에게 연구계획서를 미리 송부하고 연구참여자들의 연구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대면하였다. 연구참여 전 다시 한 번 연구참여 의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연구참여동 의서에 서명한 뒤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질 검증을 위하여서는 연구참여자 검토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 검토는 연구자가 자료분석과 글쓰기를 마친 뒤 이메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어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제기한 문제나 수정요청은 없었다.

IV. 연구결과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 소속 사회복지전공생의 멘토링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4개의 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1. 멘토링을 모르는 멘토

연구참여자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들로, 학과 내 동아리 중에서도 멘토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다양하다. 전공을 선택한 동기와 유사하게 아동청소년 영역에 대한 관심이 자원봉사동아리 가입의 계기가 된 경우가 되거나 ‘취업을 하려면 봉사활동을 미리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 동아리 가입시점에는 멘토링이라는 활동 내용은 모르는 채 학과 내 대인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동아리 가입을 선택하는 경우가 주로 많다.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동아리 가입을 선택하였지만, 동아리 박람회에서 이루어진 홍보나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선배·동기의 추천이 계기가 되어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연구참여자들도 있다.

아동청소년 멘토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멘토링 자체에 대한 이해나 목적성이 드러나지 않은 점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은 부분이다. 정부부처 및 대학이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장학금이나 학점 등 활동에 대한 보상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의무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보다 분명하던 점(김정원·김병찬 2012)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정부부처 및 대학이 주관하여 운영되는 멘토링 활동에서 주로 학점 등 나름의 기준으로 멘토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 달리,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 가입 시점에서 특별한 제한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같이 엠티를 같이 갔던 언니가 추천을 해줘서 ‘나 이런 동아리인데 같이 할래?’라는 소리에 알고 한 거지, 이번 년도에 했던 것처럼 홍보가 제대로 된 때가 아니어서 (멘토링하는지) 모르는 애들도 많고 그랬어요.” (참여자 1)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원래는 제가 원래 이 동아리 같은 경우는 아동 쪽인지 몰랐어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온 경우예요. 동기가 동아리에 있었기 때문에 왔는데 들어가니까 저를 배신하고 (동기는 나가버렸어요). 회장 형도 잘 맞고 해서 (나가지 않았고), 뭔가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활동도 안 하면 동아리에 가입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활동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10)

2. 부여된 멘토 역할의 경험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에 가입을 할 당시에는 멘토링이라는 동아리의 활동목적은 특별히 의식하지 못 하였던 연구참여자들은 본격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시작되면서 멘토링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 멘토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아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 범주는 ‘멘토 역할의 어려움 인식’, ‘멘토링의 의미 경험’ 등의 하위범주들을 포함한다.

1) 멘토 역할의 어려움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멘토링을 운영함에 있어 집단멘토링 형태로 전체 멘토와 멘티들이 동일한 활동을 함께 참여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멘티 아동과 멘토 대학생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1대1 또는 1대2로 지정되어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운영은 멘토 대학생이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나가는 동아리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멘토 개개인이 멘토링 활동을 운영함에 가질 수 있는 부담감을 덜어 준다. 그러나, 누군가와 관계를 새롭게 맺고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미 각자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멘토 집단과 멘티 집

단이 함께 만났을 때 인위적인 노력은 더욱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제 봉사를 시작하면 기관에서 가서 멘토, 멘티가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끼리(멘토), 아이들끼리(멘티)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힘들어서 선생님들이 억지로 떼어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이야기할, 그게 없고...” (참여자 2)

특히, 멘토링에 참여하기 전 사전교육을 받기는 하였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멘티 아동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하거나, 문제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멘티가 하는 말에 ‘사소하게 찢려’ 감정이 상하게도 된다. 멘토링에 꾸준히 나오지 않는 멘티를 경험할 때는 ‘내가 싫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그 외에, 개인정보를 무심코 말해버려 ‘선생님’으로 불려야 할 멘토가 ‘누나’로 불리게 되며 호칭에 혼란이 야기되고 관계 역동에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한다.

(멘티가 멘토를 기다린다는 다른 참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좋겠다, 저는 (멘티가) 잘 안 나오려고 하니까 정말 내가 싫은가보다 생각되고..” (참여자 7)

2) 멘토링의 의미 경험

멘티에게 ‘제제도 가하고 다독이는’ 만남을 이어가던 멘토는 가까이에서 ‘살을 맞붙이고 얼굴을 자주 보며’ 멘티를 챙기는 노력에, 물리적 시간이 더해짐에 따라 멘티가 ‘월별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처음에는 인사도 안 하다가, 동생까지 챙겨오는 멘티’, ‘웃을 춰게 입고 온 멘토를 걱정해주고, 먼저 김

밥을 내미는 멘티'의 변화를 느끼며, 관계가 만들어내는 '추억과 기다림'으로 멘토링의 의미를 인식하게 된다. 멘토로서 '자랑을 많이 하며 인정받고 싶어하는' 멘티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예전보다는 조절이나 통제가 나아진 모습'을 알게 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아동 분야로 나가고자 하는 자신의 진로 결정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하게 된다.

“멘토링 하면서 저한테도 경험이지만 멘티한테도 경험이 되고 막 엄청 추억꺼리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애들이 엄청 언니, 오빠들 기다리고 ‘이번 주에 꼭 와요’ 그런 것 자체가 동아리에서 했던 멘티 자체가 저소득층이고 부모님 바쁘시고 그런 애들이어서 언니,오빠들 만나서 노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애들이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걸 기다리고 하는 게 되게 좀 보람 있었어요. 애들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좀 더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줄 수 있는 게..” (참여자 9)

“저는 이걸 하면서 진로, 그런 거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제가 장애인 쪽 아니면 아동 쪽 생각하고 있었는데, 멘토링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껴서 (아동 쪽으로) 진로를 나가고 싶어요.” (참여자 6)

3. 오래된 문제, 멘토링의 제한점 인식과 변화 모색을 위한 시도

멘토링에 대한 특별한 목적성보다 주로 인간관계의 연장선 상에서 자원봉사동아리 참여를 결정하였던 연구참여자들은 멘토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며 멘토링의 어려움과 의미를 함께 느끼게 되고, 동아리 가입 때와는 달리 멘토링에 대하여 진지하게 돌아보게 된

다. 이에 따라 H대학교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의 특성상 해마다 지속적으로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고학년이나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임원에게 멘토링 활동에서 반복되는 제한점은 크게 인식되었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이 범주는 ‘동아리 차원의 제한점’, ‘기관 차원의 제한점’, ‘임원·선배 중심으로 계속 되는 변화 시도’ 등의 하위범주들을 포함한다. .

1) 동아리 차원의 제한점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가 주도하는 멘토링 활동에서의 제한점은 우선 구조적인 부분에서 시작된다. 매년 동아리 조직은 선배들의 졸업에 따라 변화가 생기기 마련인데, 시기에 따라 ‘가장 활발히 활동하던 4학년이 졸업해버리니까 많은 수들이 빠져나가버리고 학년도 어린’ 남은 구성원으로 멘토링 활동을 잘 운영하기란 쉽지 않았다. 동아리 회원이 줄고, 주 1회 진행되던 멘토링 활동이 축소되면서 구성원들은 멘토링에 수동적으로 임하게 된다. 2004년 이후 10년 동안 동일한 기관으로 동아리가 연결되어 멘토링 활동을 이어가다보니 의례적으로 반복되는 활동이 되기도 하였고, 멘토링 활동에 대하여 여유있게 평가하고 돌아보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작년(2013년)이 제일 안 좋았고요, 저희 1학년 때는 서서히 무너지는 단계였는데 그때는 그냥 다 수동적이었어요. 이번에만 진짜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거지, 저 1학년 때도 수동적이었어요. 이 날에 봉사 있으니까 나와라 이런 식으로.” (참여자 2)

2) 기관 지원의 제한점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의 만남을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주는 기관

과의 협력이 동반되어야만 질적인 멘토링이 가능하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학생자원봉사 동아리와 연결되어 멘토링을 운영한 기관 역시 동아리의 부침에 따라 멘토링에 임하는 멘토들의 기복을 보게 되고, 멘토링에 대한 기관의 지원도 점차 줄어들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부분마저 제한이 생기게 된다.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겠지만, 멘토는 멘티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어 멘토링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사전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1시간 가량의 교육은 멘토링 활동에 있어 충분하지 않았고, ‘매뉴얼이 따로 없다보니’ 멘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멘토링 활동에 대한 기관의 피드백 제한, 한정된 예산 지원, 멘티가 놀기에 안전하지 않은 공간 등 기관 차원의 지원은 제한점이 많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가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시기’와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멘토링이라 해도 처음 들어오는 애들은 기관에 대해서 무슨 일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입생)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긴 하는데, 좀 더 섬세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1학년 들어왔을 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친해져야 할 지가 막막하더라고요.” (참여자 3)

“멘티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는 게 멘토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학습 같은 경우는 학습하는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책으로, 문제집 같은 걸로 직접 먼저 멘티들이 사가지고 저희는 그냥 과외 선생님처럼 가요. 문화체험 같은 경우도 말이 문화체험이지 정말 저가로 하다 보니 한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참여자 1)

3) 임원·선배 중심으로 계속되는 변화 시도
멘토링 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기관과도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시기’를 경험하며,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 내부에서도 체계적인 멘토링 운영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필요성은 동아리의 임원과 선배학년을 중심으로 강하게 인식되고, 멘토링 활동의 내실화와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된다. 우선, ‘역사와 인지도가 높은’ 동아리의 부진이 임원진에게 크게 다가왔고, 자원봉사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신규 동아리 구성원 모집에 집중한다. 그러나, 자원봉사동아리의 회원을 늘려 멘토를 확충하고, 새로운 기관을 섭외하여 멘토링을 진행하고자 한 임원진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다. 사람이 없어 사람을 모으게 되었지만 실제 동아리 신규회원 모집에는 성공한 결과, 이제는 멘토 인원이 너무 많아져 오히려 멘토링 활동 기관을 연결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동아리의 멘토 자원봉사자를 늘려 새로운 기관과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시작하고 싶었던 임원진의 시도는 무산되게 되고, 기존 멘토링 기관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운영하는 걸로 결정되어 멘토링을 이어가게 된다.

동일한 기관에서 멘토링이 진행되게 된 상황에서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에서는 기존 멘토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변화를 시도해 본다. 우선, 멘토에게 사정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멘토와 멘티를 2대1로 매칭되었던 과거의 방식은 오히려 멘티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었음을 알고, 멘토링 매칭방식을 1대1로 바꾼다. 정기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보다 질적인 멘토링이 가능하므로 고려하여 학습멘토링과 문화체험멘토링을 격주로 운영한다. 기관에서 결정한 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지 않

고 멘토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면서 멘토링은 더욱 책임감있게 운영된다. 이러한 시도와 성실한 멘토링 활동이 이어지자, 멘토링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던 기관에서도 다시 멘토링에 대한 간식비 및 체험활동비를 지원하게 되는 등 변화를 이끌어내게 된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프로그램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인데, 전에 있었던 방식은 기관 선생님이 저희 이번 달 프로그램은 이거니까 이거 모집해주세요 하고, 전혀 예상도 못하고 그냥 주어진 것에만 저희가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고 하는 것이라 더 책임감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의 멘토링 활동이 정상화되고, 기관과의 신뢰도 회복되어 다시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의 변화가 생겼으나, 결국 연구참여자들은 10여년 간 멘토링을 해왔던 기관과 이별을 하게 된다. 그러한 결정의 이유는 기관에서 다음 해의 멘토링 활동을 장애아동 대상으로 제안하였고, 그럴 경우 기존 대학 내 다른 자원봉사동아리와 활동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동아리의 정체성과 맞물린 문제이자,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의 활동 자율성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후 임원진은 2015년 활동을 위하여 새로운 멘토링기관을 섭외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 임원진들은 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멘토링 활동 프로포절을 짜보고 기관과 의견을 조율해보는 경험도 하게 된다.

“A기관에서 원래 했었는데 저희가 일반 그

냥 아동(멘토링)인데 장애아동을 하자고 얘기 하셔서, 장애인 쪽으로 분류가 되지 않냐 하면서 (동아리 내부에서) 조금 다툼이 있다가 장애아동은 (학과내 다른 자원봉사동아리랑 겹쳐)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고, 저희가 계속 연락을 돌려보다가 B기관에 전화를 해보니까 마침 대학생들 멘토링 활동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프로포절을 간부 4명이서 밤 열 시까지 짜면서 기관에서 넘어갔는데, 인원수 조정 때문에 너무 많다 얘기도 나오고, 문화체험과 학습멘토링을 해가지고 나누니까 괜찮을 거라고 설득해서 결국 했던 곳이 B기관이었어요.” (참여자 6)

4. 새로운 시도에 따른 멘토의 성장과 과제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는 멘토링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멘토링 사전준비를 시도한다. 이는 멘토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는다. 이 범주는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기관과 사전준비’, ‘멘토의 역량 강화’, ‘남겨진 과제’ 등의 하위범주들을 포함한다.

1) 시행착오를 고려한 기관과 사전준비

연구참여자들은 10년 동안 한 기관에서 멘토링을 진행하였던 경험에서 제한점이 반복되고 활동이 의례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이 멘토링의 질과 만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새로운 멘토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과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려 한다.

A기관에서 이루어졌던 멘토에 대한 교육은 1시간 가량으로 짧았으며, 기관에서 동아리 임

원진에게, 동아리 임원진이 동아리 구성원에게 교육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다보니 체계적이고 세심한 교육내용이 멘토에게 전달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B기관에서는 새로운 멘토링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관에서 3시간 동안 멘토 교육이 진행되어 멘토는 멘토링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숙지할 수 있었다. 멘토 교육에서는 멘토와 함께 하는 멘토링 활동 외에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사전면담 진행, 활동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까지 다루고,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멘토가 향후 방향성을 잡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멘토는 멘티 아동과 부모를 만나 기관에서 사전면담하고, 면담과정을 통하여 아동에 대한 기본정보 외에 부모의 욕구나 기대까지 파악할 수 있다. 멘토는 사전면담에서 알게 된 ‘아동의 문제점에 대한 정보가 많아 미리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향후 멘토링을 계획하고 아동 특성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는데에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멘토링이 진행되는 공간 역시 아동들에게 위험한 물건 등은 사전에 관리되고,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는 등 멘토링 활동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사전에 마련된다.

“기관에서 사전교육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걸 물어봐라 그런 식으로 저희에게 교육시키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면담을 진행했거든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여쭙보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궁금한 것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질문했어요. 사실은 많이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에 대한 정보도 부모님의 면담을 통해서 얻었고... 면담할 때요, 일단 **이의 가족사항이나 아니면 문제점, 어머니가 *이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하고 싶은 지, 다음

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물어봤어요.” (참여자 10)

2) 멘토의 역량 강화

과거의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멘토링에 들어가기에 앞서 체계적인 멘토 교육, 부모 및 아동 면담, 활동계획서 작성 등이 사전에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멘티를 만나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사전면담과 교육, 제공받은 매뉴얼을 통하여 아동 개개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늘고 준비된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니 멘티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파악도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제 멘티 같은 경우는 뭐 하려고 하면 혼자 끝까지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또 다른 아동은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고 막 그러길 바라는 아동도 있고, 다른 선생님이랑도 친하게 노는 아동이 있고, 또 그냥 자신 멘토 선생님만 따르는 아동도 있고.” (참여자 12)

연구참여자들은 멘티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화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멘티의 변화를 지원하고 파악하는 역량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우는 걸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개인활동에만 몰두하는 멘티 아동과 관계가 형성된 뒤, 멘토는 울지 않고 적절하게 요청하기, 단체활동에 함께 하기와 같은 목표를 세웠고, 지속적으로 멘티를 지도하여 아동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외에도, 아동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강화하는 역량이 늘고, 멘토 자신의 실천과정에 대해서도 성찰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러한 멘토의 역량 강화는 학년에 따른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활동일지를 연속적있게 기록하고 멘

토링 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을 통하여 촉진된 것으로 보여진다.

어머니께 아동이 갑자기 변하는 것보다 천천히 변화하는 것을 지켜봐줄 것을 당부드렸다. 어머니의 말에 경청하였으며 공감을 통해 어머니께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어머니의 욕구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하지만, 첫 면담의 부담감으로 인해 면담 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었으며,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는 어머니의 욕구와 아동의 욕구를 종합하여 아동의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참여자 10)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멘티와 멘토링을 시작하고 마무리함에 있어 비밀보장이나 종결예고와 같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이슈를 사전에 고려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멘토링이 시작되는 첫만남에서부터 멘티에게 비밀보장 원칙에 대하여 알리고, 사전에 종결예고 및 종결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과거 멘토링 진행시 ‘끝나는 날짜는 애기 안 했던 것 같’거나 ‘기관에서 말하지 않았을까’ 하며 종결예고를 고려하지 못 했던 연구참여자가 종결과정을 명확하게 인식, 준비함으로써 멘티아동은 종결을 인식하고 이별을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멘토링 종결을 보다 수월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멘토링 과정 중 나눴던 말들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다.¹⁾ (참여자 13)

1)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멘토링 활동일지에서 가져온 문장은 따옴표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초점집

“아이들한테 다음 주쯤에는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종결된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 할 예정이에요.” (참여자 6)

아이는 종결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지만, 많이 아쉬워 하였다. 종결 시간이 가까워지자, 아이는 멘토 선생님을 따로 불러, 울음을 터트리며 앞으로 보지 못할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종결을 하고 나서 아이는 기분이 진정되었으며, 다시 활발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참여자 10)

3) 남겨진 과제

과거 활동의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멘토링을 준비하고, 실제 멘토의 역량이 강화되는 성장이 있었지만,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의 멘토링 활동에 있어 변화가 요구되는 과제는 남는다. 이는 멘토링 활동의 특성 외에도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가 가지는 특성에 기반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멘토링 활동 차원과 관련한 과제로 우선,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청소년실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느낀다. 멘토링 활동에 대한 사전교육 및 활동일지 작성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은 멘토링 활동에 대한 성찰성은 늘어났으며, 보다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욕구는 멘토교육지원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멘토링 활동이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주는 기관이 존재하여 실행된다는 점에서 기관과의 일정조율 및 자율성에 대한 욕구도 연구참여자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과거 A기관과의 활동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멘토가 멘토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때

단면집에 참여하지 않았던 연구참여자의 활동일지도 분석에 함께 활용됨.

더욱 책임감있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정 조율이나 기획한 내용에 제한이 있을 때는 ‘기관과 봉사자가 갑을 관계가 아닌가’ 고민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아울러, 멘토의 책임성도 더욱 요구된다. 부득이하게 멘토링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때 ‘편지랑 초콜렛 준비해서 대신 전달해달라고’ 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기 는 하지만, ‘멘토의 사정으로 봉사에 불참하게 되어 (다른 멘토로 대체되었을 때) 멘티의 기분이 우울해 보이는’ 등 멘토의 지각이나 결석은 멘티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저희가 아동청소년동아리잖아요. 동아리활동을 한 친구들은 과에서 청소년에 관심이 많아서 동아리에 들어오는. 그런데 동아리 활동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학년에 맞는) 수업이 없어서 수업을 듣지 못 하면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배우면 그만큼 쓸 수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아는 게 없으면 쓰기가 힘든. 그렇게 더 그쪽으로 배우고 싶은 아이들은 동아리 활동 밖에 없고.” (참여자 3)

“저희가 운동회를 진짜, 기관 선생님하고 열심히 프로그램이랑 다 짰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할 지 어떻게 할 지 공굴리기도 하고 떡먹기 이런 것 다 계획을 했는데, (기관의) 지부 위에 본부에서 하지 말아라 해버린 거예요. 저희도 ##이랑 같은 생각으로 멘티끼리 친해지면 좋은 것 같다 해서 운동회를 기획했는데 본부에서 하지 마라 해가지고 못 했거든요.” (참여자 6)

아울러, 사람이 좋아서 가입하게도 된 동아리이지만, 활동인원이 많아지면서 소통에 제한이 생기기도 한다. 자원봉사 활동에서 멘토의 복장에 대한 인식이 달라 ‘짧은 치마가 아니라

그냥 치마’에 대하여 이견이 생기기도 하고, 멘티 앞에서 호칭 실수가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하는 선배가 서운하기도 하는 등 동아리 내부에서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보통 (멘토끼리) 언니, 오빠 이렇게 부르니까 저는 ‘오빠’, 이랬는데 ‘OO가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중략) 따로 불러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거기에서 ‘안 돼!’ 해서 ‘아..’ 이라고 그랬었어요.” (참여자 7)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이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과제는 대학의 동아리운영 지원이다. 과거에 비하여 대학의 자치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는 하나, 대학의 동아리 지원 역시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동아리를 지원하는 공간이나 예산이 축소되어 동아리공간을 다른 동아리와 함께 사용하여야 함으로써 상시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봉사단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를 지원하는 예산도 적어서 동아리 구성원의 회비와 임원단의 사비로 운영이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보상을 바라고 시작한 자원봉사는 아니지만 자신들의 활동을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에 활동이 위축되기도 하고, ‘이름 뿐인 상장’이라 하더라도 가시적인 인정에 대한 욕구도 가지게 된다.

“(오래) 해왔으니까 당연하게 보는 거 같아요. 다른 동아리를 예를 들어보면, △△△△가 정신보건동아리인데 거기는 사실 (기관에서) 활동하였을 때 주는 상이 많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멘토 학생들이 내가 뭘 했구나, 의미 있는 그런 보상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이름 뿐

인 상장이라도 받으면 내가 열심히 했구나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참여자 1)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 소속 사회복지전공생의 멘토링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 5회의 초점집단면접과 활동일지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질적 연구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 소속 사회복지전공생의 멘토링 경험은 4개의 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으며, 범주는 ‘멘토링을 모르는 멘토’, ‘부여된 멘토 역할의 경험’, ‘오래된 문제, 멘토링에서의 제한점 인식과 변화 모색을 위한 시도’, ‘새로운 시도에 따른 멘토의 성장과 과제’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은 사회복지전공생으로, 다양한 동기로 학과 내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에 가입하게 된다. 가입 당시 멘토링이라는 동아리의 활동목적은 특별히 의식하지 못 하였던 연구참여자들은 본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멘토 집단과 멘티 집단의 관계 시작은 쉽지 않고 아동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반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아동과 추억을 만들고 변화를 느끼게 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 분야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진로를 분명히 정하게도 된다. 그러나, 매년 활동이 반복될수록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의 멘토링이기에 가지는 제한점도 명확히 인식되면서 동아리의 부침은 수동적 멘토링 활동으로 이어져 기관과의 신뢰에도 영향을 끼치고, 기관의 지원도 제한되는 모습을 보인다. 임원과 선배학년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멘토링 운영을 위하여 변화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도 하게 된다. 2015년 새로운 기관과 시작된 멘토링 활동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사전준비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멘토의 역량 강화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나, 멘토링을 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멘토링 활동 차원과 동아리 차원의 과제가 남는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에 소속된 사회복지전공생의 멘토링 경험에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멘토링 활동은 사회복지전공생이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전공과 관련하여 심화된 경험과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가자들은 멘토링 활동 과정을 통하여 사전면담에서 부모와 아동의 욕구를 명확히 하여 목표를 설정하거나 아동의 개별화된 특성을 고려하여 개입계획을 세우고 (참여자 10), 종결에 따른 준비를 하는 등(참여자 6) 전공수업에서 배운 사회복지실천기술을 직접 적용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프로그램 기획과 성과가 강조되는 현실에서(김상곤·최승화·안정선 2012) 멘토링 활동기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프로포절을 짜보거나 기관과 의견을 조율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참여자 13)을 중시하는 등 사회복지가치를 고려한 실천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험들은 사회복지전공생으로서 진로를 아동복지로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참여자 6). 이는 전공연계봉사경험이 사회복지전공생의 사회복지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최소연 2010)를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에 소속된 사

회복지전공생의 멘토링 경험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뤄진 멘토링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우선, 정부부처 및 대학이 주관하는 멘토링의 경우 장학금이나 학점, 해외봉사우선권 등 멘토링에 대한 보상이 명확히 제시되어 시작되고 있는 만큼 멘토 역시 멘토링 활동에 따른 의무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보다 분명하였지만(김정원·김병찬 2012; 박창우·이용재 2014),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에 소속된 사회복지전공생은 동아리 가입 당시 멘토링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나 정부유관기관이 주최가 되어 진행되는 멘토링 활동이 학기 또는 해마다 멘토 모집이 새롭게 이루어져 선배 멘토를 통한 노하우를 얻기 힘들거나 ‘스펙 같은 단기봉사’로 인식되는 제한점(김남숙·김승현 2011; 김한나·김홍석 2012)을 가지는 데 반해,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가 주관하는 멘토링은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임원과 선배학년들을 중심으로 노하우를 나누거나 프로포절을 준비하며 주체적인 참여와 성장의 경험을 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멘토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대학교 사회복지센터 등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멘토링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멘토의 자율성과 선택권은 축소되는 추세(김한나·김홍석 2012)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로서 멘토링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멘토링 주관기관에서 멘토의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고려한 운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멘토가 주어진 역할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을 때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 소속 사회복지

지전공생의 멘토링 활동이 질적으로 강화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멘토가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아리 차원의 노력과 함께 사회복지기관, 학과 및 대학 차원의 구조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 차원에서는 학과의 선·후배이면서 동등한 멘토로 활동하게 되면서 겪는 호칭의 혼란, 멘토 복장에 대한 관점의 차이, 멘토의 지각이나 결석에 대한 원칙 적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소통하여 합의된 문화나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멘토와 멘티를 연결하는 사회복지기관 차원에서는 멘토의 성장을 위하여 사회복지전공생에게 멘토링 활동의 매뉴얼과 사전교육, 부모 및 아동과의 사전면담, 멘토링 활동일지에 대한 슈퍼비전 등을 제공하며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전공생의 자원봉사가 사회복지실천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질적인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정상원·한은영 2013), 멘토링 활동일지를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사회복지전공생인 멘토가 자신의 실천경험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멘토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전공생의 실천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과 차원에서는 멘토링과 연계되는 심화교육을 운영하고, 학교 차원에서는 대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활동일지는 학년에 따라 기록에 편차가 있었으며, 저학년의 경우 ‘전문적으로 아는 게 없으면 쓰기가 힘든’(참여자 3) 제한점을 토로하며 관련 심화교육의 욕구를 나타낸 바 있다. 사회복지교육에 있어 현장실습은 강조되고 있지만, 학부를 기준으로 40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도록 하는 미국에 비하여 한국은 학부실습이 120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전공생의 자원봉사는 제한적인 사회복지현

장실습시간을 보완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공생의 실천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학과에서 정기적으로 동아리 특성에 맞는 전공관련 심화교육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학교 차원에서도 동아리공간 및 동아리 운영비 등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 소속 사회복지전공생은 멘토링 활동에 있어 운영 방식에 따라 멘티의 역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하며, 이를 고려하여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멘토링을 운영함에 있어 집단멘토링 형태로 전체 멘토와 멘티들이 동일한 활동을 함께 참여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멘티 아동과 멘토 대학생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1대1 멘토링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이는 멘토 대학생이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나가는 동아리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멘토 개개인이 멘토링 활동을 운영하며 가질 수 있는 부담감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으나, 멘티 집단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역동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멘토링 활동에서는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멘티들이 참여하다 보니 이미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 멘티 집단과 멘토들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반면, 2015년 멘토링의 경우 멘티 간의 관계 축진도 멘토링 활동에서 하나의 목표로 설정되어 이를 고려한 운동회가 기획되기도 하였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집단역동을 통한 성장 도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집단을 활용한 실천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전공생은 멘토링 기획 단계에서부터 집단역동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활동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에 소속된 사회복지전공생의 멘토링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멘토링에 있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 소속 멘토의 목소리를 통하여 멘토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반면, 멘토링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멘티 및 기관 담당자의 경험을 살펴보는 못 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의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는 멘토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윤순. 2014.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한 대학생의 집단멘토링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35호, pp. 1-32.
- 고홍월·이지명. 2010. “청소년 학습 멘토링 활동에 서의 경험.”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11호, pp. 228-262.
- 김경준·김영자·정익중·김지혜·조은주·이수자·오미선. 2012.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남숙·김승현. 2011. “아동청소년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멘토 FGI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6권, pp. 387-403.
- 김동일·정여주·허은·방나미. 2010.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제11권 제2호, pp. 583-602.
- 김상근·최승화·안정선. 2012.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학지사.
- 김순규·장영숙·정미라. 2012.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학습동기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제19권 제3호, pp. 531-546.
- 김재철·성경주. 2008.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의 실태현황, 기대효과 및 활성화 방안.” 『교육연구』 제16권, pp. 97-118.
- 김정원·김병찬. 2012. “대학교 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30권 제2호, pp. 27-50.
- 김영순·방현화·홍정훈. 2014.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멘토링 참여 대학생 멘토의 열린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제22권 제4호, pp. 1-22.
- 김한나·김홍식. 2012.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 멘토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여.” 『다문화교육연구』 제5권 제2호, pp. 91-113.
- 노윤경·이기학. 2012. “멘토경험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pp. 233-252.
- 대한민국정부. 2005. 인재강국 코리아(Creative Korea): 제 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06~’10). 세무 추진 정책과제.
-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 저. 정승현 옮김. 2009 『나홀로 볼링』 서울: 페이퍼로드.
- 박경민. 2008.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사례연구.” 『사회복지실천』 제7권, pp. 159-183.
- 박창우·이용재. 2014. “대학의 재능기부동아리 활동과 지역아동센터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아동보호.”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18권 제3호, pp. 55-77.
- 박현선. 2000. “실직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제41권 제1호, pp. 147-172.
- 박현선. 2012.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학교 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학교사회복지』 제23권, pp. 101-122.
- 배진형·안정선·방진희. 2014. “멘토링 활동 참여 경험에서의 멘토의 성장과 도전-H 대학교 멘토링 프로그램의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제11권, pp. 95-144.
- 성문주·유지영. 2013.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사례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 pp. 5-33.
- 신윤희·안양희.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지역사회 간호학회지』 제20권 제2호, pp. 259-268.
- 심연수. 2013.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인의 시민성 함양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 제38집, pp. 39-67.
- 양민화·이애진·손정원·정혜림. 2011.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의 멘토·멘티·교사의 요구와 지원방안 분석” 『특수교육』 제10권 제2호, pp. 83-114.
- 양지훈·김민아. 2016.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 pp. 65-94.
- 원미순·박혜숙. 2008. “전공연계 봉사-학습 (Service-Learning) 의 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학교사회복지』 제15권, pp. 57-76.
- 윤경원·엄재은. 2009. “다문화 멘토링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19권 제3호, pp. 101-124.
- 이길영·황명식. 2004. “대학생 멘토링이 중학생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ENGLISH TEACHING(영어교육)』 제59권 제2호, pp. 237-268.
- 이금진. 2015. “아동·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메타분석 고찰.” 『생명연구』 제37권, pp. 173-214.
- 이상용. 2012.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한 대학생의 저소득층 자녀 교육멘토링 참여에 미치는 요인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4권 제3호, pp. 436-445.
- 조휘일·정재훈·원미순·박윤숙. 2009. 『자원봉사론』 교양: 공동체.
- 정상원·한인영. 2013. “사회복지전공생의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실천역량에 관한 연구 : 수퍼비전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교육』 제23권, pp. 93-120.
- 존 크레스웰(John Creswell) 저. 조홍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옮김. 2010.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학지사.
- 지은정. 2014. “시민서비스는 자원봉사의 대척점에 있는가?-미국의 AmeriCorps와 Senior Corps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5권 제2호, pp. 31-64.
- 최선희·김희수·양혜원·이근영·최지현. 2010. “저소득 아동, 청소년 대상 멘토링의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질적 연구-멘티, 멘토, 멘티 부모, 실무자 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제3호, pp. 79-118.
- 최소연. 2010. “사회복지전공학생의 사회복지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2집, pp. 73-96.
- 한영주·이유정·김수정·이희진. 2015. “빈곤가정 청소년과의 장기 멘토링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상담학연구』 제16권 제5호, pp. 229-251.
- 한인영·박형원·김주현. 2005. “전공교육과 연계한 봉사학습(SERVICE-LEARNING)의 효과 연구: 사회복지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3호, pp. 251-276.
- 행정자치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5. 『2015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I』 서울: 행정자치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 홍영란·김태준·조영하·박희봉·양정호. 2006.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References

-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CSWE). 2003-2004. *Educational Policy and Accreditation Standards*. Alexandria: The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 DeWit, David J., David DuBois, Gizem Erdem, Simon Larose, and Ellen L. Lipman. 2016. "The Role of Program-Supported Mentoring Relationships in Promoting Youth Mental Health,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Outcomes." *Prevention Science* 17 (5): 1-12.
- DuBois, David L., Bruce E. Holloway, Jeffrey C. Valentine, and Harris Cooper. 2002. "Effectiveness of Mentoring Programs for Youth: A Meta-analytic Review."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 (2): 157-197.
- Grossman, Jean, Christian Chan, Sarah Schwartz, and Jean E. Rhodes. 2012. "The Test of Time in School-Based Mentoring: The Role of Relationship Duration and Re-Matching on Academic Outcom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9: 43-54.
- ILO. 2011.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Statistics Department of Statistics. ILO. www.ilo.org.
- Jackson, Yo. 2002. "Mentoring for Delinquent Children: An Outcome Study with Young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 (2): 115-122.
- Karcher, Michael J. 2007. *Research in Action: Cross-age Peer Mentoring*. Alexandria: National Mentoring Partnership.
- Kitzinger, Jenny. 1994. "The Methodology of Focus Groups: The Importance of Interaction between Research Participants."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16 (1): 103-121.
- McQuillin, Samuel D., and Michael D. Lyons. 2016. "Brief Instrumental School-based Mentoring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ory and Impact." *Advances in School Mental Health Promotion* 9 (2): 73-89.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gins, Belle Rose and Kathy E. Kram, eds. 2007. *The Handbook of Mentoring at Work: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London: Sage Publications.
- UNV. 2011. *State of the World's Volunteerism Report: Universal Values for Global Well-being*. United Nations Volunteers. www.unv.org.
- Wood, Sarah and Evan Mayo-Wilson. 2012. "School-Based Mentoring for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2 (3): 257-269.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Bae Jin-Hyung, Ahn Jeong-Sun, and Pang Jin-Hee. 2014. "The Growth and Challenges in Mentoring Participation: Focused on Students' Evaluation of the KBU SMILE Mentoring Program. *Social Work Practice and Research* 11: 95-144.
- Cho Whee-Il, Jung Jae-Hoon, Won Mi-Soon, and Park Yun-Sook. 2009. *Volunteerism*. Goyang: Community Publications.
- Choi Seon-Hee, Kim Hee-Soo, Yang Hae-Won, Lee Keun-Young, and Choi Ji-Hyeon. 2010. "The Outcome and Process of a Mentoring Program for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of Low Income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2 (3): 79-118.
- Choi So-Yun. 2010. "A Study on the Social Work Self-Efficacy of Social Work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12: 73-96.
- Gao Hong-Yue and Yi Ja-Myoung. 2010. "Learning Experiences in Adolescents' Mentoring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 (11): 228-262.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05. *Second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NHRD) ('06~'10)*.
- Han In-Young, Park Hyoung-Won, and Kim Ju-Hyun. 2005. "Implementation of Service-Learning for Social Work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7 (3): 251-276.
- Han Young-Joo, Lee Yoo-Jung, Kim Su-Jeong, and Lee Hee-Jin. 2015. "A Narrative Inquiry on the Experience of Mentors and Mentees of a Long-term Mentoring Program for Teenagers of Low Income Familie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 (5): 229-251.
- Hong Young-Ran, Kim Tae-Jun, Cho Young-Ha, Park Hee-Bong, and Yang Jung-Ho. 2006. *Educational Strategies to Form Social Capital for National Development*. Seoul: Kor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Ji Eun-Jeong. 2014. "Is Civic Service the Real Antipode of Volunteer Work? Focusing on AmeriCorps and Senior Corps in the United Stat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5(2): 31-64.
- Jong Sang-Won and Han Eun-Young. 2013. "A Study of Social Work Students' Volunteering and Competence of Social Work Practice: Analysis of the Moderator Effect of Social Worker's Supervi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23: 93-120.
- Kim Dol-Il, Chung Yeo-Ju, Hur Eun, and Bang Na-Mi. 2010. "Development of Youth Mentoring Program for Improv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Emotional Empathy Capacity and Investigation of Its Effec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 (2): 583-602.

- Kim Han-Na and Kim Hong-Seok. 2012. "A Study on Mentors Participating in a Multicultural Mentoring Program: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5 (2): 91-113.
- Kim Jae-Cheol and Sung Kyoung-Ju. 2008. "Survey and Discussion to Stimulate Mentoring Program activities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6: 97-118.
- Kim Jung-Won and Kim Byeong-Chan. 2012.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Administrative Process in Volunteer University Programs."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0 (2): 27-50.
- Kim Kyung-Jun, Kim Young-Gi, Chung Ick-Joong, Kim Ji-Hae, Cho Eun-Ju, Lee Soo-ji, and Oh Mi-Sun. 2012.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Youth Mentori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Kim Nam-Sook and Kim Seung-Hyun. 2011. "Study on Mentor FGI to Activating Youth Mentoring."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6: 387-403.
- Kim Sang-Gon, Choi Seung-Hee, and Ahn Jeong-Sun. 2012. *Social Work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Seoul: Hakjisa Publications..
- Kim Soon-Gyu, Jang Yung-Sook, and Chung Mi-Ra. 2012. "The Effectiveness of Mentoring Programs for Learning Motivation and Self-Esteem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19 (3): 531-546.
- Kim Young-Soon, Bang Hyun-Hee, and Hong Jung-Hoon. 2014. "Study on the Perception Changes of University Student Mentors in a Mentoring Program of Learning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2 (4): 1-22.
- Koh Yun-Soon. 2014. "A Qualitative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Group Mentoring for Delinquent Adolescents under Proba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35: 1-32.
- Lee Keum-Jin. 2015. "Effects of a Mentoring Program for Children and Juveniles: A Meta-analytic Review." *Studies on Life and Culture* 37: 173-214.
- Lee Kil-Ryoung and Hwang Myeong-Shik. 2004. "The Impact of Collegian Mentoring on English Learning of Secondary Students." *English Teaching* 59 (2): 237-268.
- Lee Sang-Yong. 2012.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Educational Mentoring Participation for Low-income Children: Application of Cooper's Multiple Lens."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Sciences Education* 24 (3): 436-445.
- Loh Yun-Kyoung and Lee Ki-Hak. 2012. "Effect of Mentor Experience on Career Adaptability among University

-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3(3): 233-252.
-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Korea Volunteer Center. 2015. *2015 Volunteer Center Current State*. Seoul: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Korea Volunteer Center.
- Park Chang-Woo and Lee Yong-Jae. 2014. "Protection of a Local Community's Children through the Linkage of University Talent Donation Club Activities and a Community Child Center.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ducare Welfare*. 18 (3): 55-77.
- Park Hyun-Sun. 2000. "Effectiveness of a Mentoring Program for Increasing the Resilience of Children from Unemployed Famil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1 (1): 147-172.
- . 2012. "Impact of a School-based Mentoring Program on Youths in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3: 101-122.
- Park Kyung-Min. 2008. "A Case Study of a University Students Mentoring Program for the Children of Low Income Families. *Social Work Practice* 7: 159-183.
- Seong Moon-Ju and Yoo Ji-Young. 2013. "Supporting Undergraduate Student Mentors in Mentoring Programs for Youth: A Case Study. *Studies on Korean Youth* 24 (2): 5-33.
- Shim Yeon-Soo. 2013. "A Study on Fostering Korean Citizenship to Consolidate National Identity.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8: 39-67.
- Shin Yun-Hee and Ahn Yang-Heui. 2009. "A Mentoring Program for Stress Management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 (2): 259-268.
- Won Mi-Soon and Park Hye-Sook. 2008. "Effects of Service-Learning Experience Embedded in Course Work: An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Schol Social Work* 15: 57-76.
- Yang Ji-Hoon and Kim Mi-Na. 2016. "The Effects of a Mentoring Program for Adolescents: A Meta-analysis. *Studies on Korean Youth* 27 (1): 65-94.
- Yang Min-Wha, Lee Ae-Jin, Son Jeong-Won, and Jeong Hye-Lim. 2011. "An Analysis on the Needs of the College Student Mentoring Program: Three-Dimensional Aspects from Mentors, Mentees and School Teacher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0 (2): 83-114.
- Yoon Kyong-Won and Uhm Jae-Eun. 2009. "A Qualitative Study of Cross-cultural Mentoring: Mentoring as the Everyday Practice of Multiculturalism.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9 (3): 101-124.